

# 서남해안 기업도시 '공유수면 토지화' 길 열리나

### 해수부 검토 완료·국토부 심의 진행중...자금 조달·투자 유치 핵심

사업자의 자금난, 추가 투자 난항 등으로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이하 서남해안 기업도시)이 활로를 찾을 지 주목된다. 사업자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공유수면 토지화'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가 검토를 마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위원회에 심의를 맡겼기 때문이다. 과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온 정부 부처의 입장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13일 "지난달까지 해양수산부가 서남해안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에 대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국토교

통부로 넘겨 현재 도시개발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부지의 84%에 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올 하반기 중 매립준공을 통한 토지화가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준공을 마치고 토지로 형질을 변경할 경우 등기 및 소유권을 확보해 금융권에 담보물권으로 제공할 수 있어 사업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남해안 기업도시의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지구 2096만㎡ 중 1593만3000㎡, 삼호지구 866만1000㎡ 중 843만8000㎡가 공유수면이

다. 전남도는 자금 부족으로 그동안 중국·싱가포르 등의 자본을 유치하려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했으며, 공유수면 토지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정부부처에 꾸준히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부지의 84%가 방조제 준공에 따라 형성된 사실상의 토지이지만 매립 준공이 되지 않아 법상 공유수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가 성공의 핵심 사안인데 그동안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이후 구성지구에 90억원, 삼호지구에 75억원, 삼포지구에

173억원 등 모두 338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전남개발공사도 구성지구에 90억원, 삼포지구에 126억원 등 216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554억원의 현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구성지구의 공적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삼호지구는 지난 2014년 9월 45호 골프장이 착공됐을 뿐이다. 삼포지구는 서류상 존재하는 카보 주식회사가 여전히 사업자로, F1경주장 주변에 최근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착공되는 등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9월에는 3036억원이 투입되는 영암 삼호읍(국도2호선)~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의 진입도로(10.83km)가 착공하기도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정책자문관실 폐쇄·인원 축소

### 투명성 제고...시의회 조례 제정 선제 대응

광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책자문관실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는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기로 하는 등 회오리가 예고된 상황에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선 6기 전반 가리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만큼 논란 거리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광주시는 현재 운영중인 대외협력, 민간자문관, 비전·투자 등 13개 분야 13명에서 13년 6월 15일 현재 13명에서 13명으로 정액인원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골짜기 없는 시선을 받았던 자문관실도 조만간 폐쇄하고 직원 회의실 등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해결된 현안 관련 정책자문관은 재위촉을 하지 않도록 해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문성과 활동이력 검증에 강화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문활동 과정에서 정책자문관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내역을 반드시 대장에 기재해 자료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겠다고 시는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라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의 직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처럼 '협력관'으로 통일해 명칭에서 생기는 혼란도 줄일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宗家 전승 본격화도, 증가회 구성...학술대회도

전남 곳곳에 자리한 증가(宗家)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13일 "전남의 대표 종손, 종부, 문중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가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증가회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밝혔다.

증가회는 지역사와 생활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문화유산이면서 동시에 선조들의 삶의 정신과 문화가 서려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증가문화 관련 사업은 전남 도정 역점사업인 '남도문예 르네상스'에 포함돼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지역에 종택, 묘소, 서원 등의 뿌리를 두고 10대 이상 내려온 증가의 장수를 회원으로 하고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증가회가 지속성을 가지고 전남 증가문화의 보존과 선양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가회 첫 회장에는 해남읍씨 어촌은공파 14대손 윤형식(83)씨가, 부회장에는 나주 밀양박씨 청제공파 15대손 박경중(70)씨가 각각 선출돼 2년 동안 전남 증가회를 이끌게 됐다.

앞으로 증가회는 증가 간 친목 도모, 문화유적 및 증가 답사 등을 통한 교류와 종택·종가·예비·증가음식 등 증가문화 발굴·확산, 증가문화의 정신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 뿌리를 두고 대를 이어온 증가는 16개 시·군에 34곳이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윤장현 시장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 정찬용 자동차산업발전추진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100만 명 서명부 전달 출정식'이 열렸다.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광주 조성을 바라는 광주시민 및 사회단체 회원과 전남, 대구 등 전국 시·도민 100만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전달됐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 車 100만대 생산도시 예타 조속 통과를"

### 시, 100만 서명부 기재부에 전달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향한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100만명 서명부'가 13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전달됐다.

광주시는 이날 136권으로 제본된 서명부를 35개 상자에 나눠 담아 우편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운영현 광주경제인총연합회 이사, 김승철 기아차노조 광주지회 부위원장등이 기재부 담당성심사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5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기아차 노조, 시민사회단체 회원, 청년들, 고향을 떠난 향우들이 참여했다. 달빛동맹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대구시, 광주 인접 전남 5개 시·군 등 타 지역민도 동

참하는 등 지난 6월10일까지 57일간 총 104만5620명이 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100만 명 서명부 전달 출정식'이 열렸다.

출정식에서 윤장현 시장은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청년일자리와 미래먹거리, 나아가 한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열어줄 신행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정부가 광주시민 뿐만 아니

라 전국 각지에서 표출된 뜨거운 열망을 살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주기 기아차노조 광주시지회장은 "광주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바라는 100만 시민들의 염원이 정부에 전달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및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6·15 선언 16년...남북은 '빙하기'

### 박 대통령, 대북압박 지속...대화·교류 완전 단절

오는 15일이면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포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6년이 되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거둬지고 있다.

2009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로 남북관계는 후퇴했고, 급기야 올해 들어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울스톱'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

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자금지원 단합된 입장에서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중단됐다. 또 북한의 잇따른 남북 군사회담 제의도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 해수욕장 7월 개장 앞두고 일제 정비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남지역 57개 해수욕장과 해안 도로 주변 숲 267ha를 6월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피서객 안전과 시원한 경관 조성을 위해 여수와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해안면에 접한 12개 시·군, 4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사업과 공공산림기르기 인력 220여명을 투입해 해수욕장 주변 죽어서 방치된 고사목과 피해목, 잡목, 칩대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오는 7월 1일 완도 명사십

리와 고흥 남해 해돋이 해수욕장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55개 해수욕장이 7월 중순까지 잇따라 개장된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전남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도록 숲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영광 흥농에서 여수 둔덕동까지 연결된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서남해안의 바닷길, 마을길, 셋길 등 해안 경관을 하나로 묶는 '전라도 정도(庭道) 1000년 가로수길'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

##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2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건물71평 토지54평 코너위치 1층점포,2층주택 ▶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1억5천3백만원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근린주택 건물71평 토지54평 코너위치 1층점포,2층주택 ▶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1억5천3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건물물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8천(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가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서구 화정동 가스충전소 금호월드인근 건물142평 토지301평 투가가치우수 ▶ 최저가 17억1천만원

###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양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할만 인근 건물66평 토지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북구 연제동 근린시설지하층~3층 연제동현대아파트부근 도로점 사무실추천 ▶ 감정가 5억2천 최저가 3억7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22평 마을입구 도로점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 남영건설 주식회사M&A 공고

### 1.개요

- ① 회사 개요: 광주지방법원 관할의 회생회사로서, 토목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
- ② 조달청기종등록: 3등급 (도급순위: 토건 246위)
- ③ M&A 방법: 재차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투자자본 유치
- ④ 입찰 방법: 공개경쟁입찰

### 2. M&A 진행 일정

- ① 인수인계서 접수
  - 접수기간: 2016년 6월 23일(목) 17:00까지 (대한민국 서울시간)
  - 접수장소: 대구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대로 107(화정동 783-20) 대광빌딩 6층]
  - 제출서류: 인수인계서 및 관련 부속서류
- ②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
  - 인수인계서 제출 및 소정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는 회사소재지(모) 등의 자료 제공과 Q&A 등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 ③ 예상 입찰 진행 절차
  - 인수인계서 접수정보이용료 납부 포함 및 사전심사 - 예비심사자료 제공 - 입찰서류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MOU) 체결 - 계약서 작성 - 투자계약 체결

### 3. 기타 사항

1. 인수인계서 작성 안내문 및 관련 부속서류 작성은 매각주간사에 요청하여 수령함.
2. 인수인계서 접수 이후의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인수인계서 접수 후 개별적으로 연락함.
3. 인수인계서 제출 및 입찰서류 등 본 M&A와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함.
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5. 본 M&A 진행 절차, 인수인계서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접수 여부, 적격투자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의 선정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주간사의 고유권한으로, 잠재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본 M&A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재무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주지방법원 회생심판준칙 제2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및 회생절차 M&A 거래에서의 대한민국 법원의 일관적인 실무 관행 등에 따른, 본 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인계서 제출 요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규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유는 인수인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잠재투자자에게만 이루어짐.

본 M&A 진행 관련 문의사항은 매각주간사인 대구회계법인(TEL: 010-4629-3235) 또는 문의해설사기 바랍니다.

남영건설 주식회사 M&A 매각주간사  
대구회계법인

##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 무료 대 특강(롯데백화점)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6. 15(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 강/의/내/용

- 1교시 하반기 경기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 공개
- 2교시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및 정확한 수익 분석
  - 이전 농지가 돈이 된다! / 돈이 되는 농지 구분법
- 3교시 재테크의 달인 김영표 대표의 성공 투자 해법 공개
  - 투자 실패 사례 분석 및 성공 사례 완벽 분석
  -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 / 물건별 심층분석 및 일반인 투자 노하우
- 4교시 물으면 개발! 토지 투자로 영리한 월세 받는 비법 공개
  - 미래 가치 확실한 개발지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완전 공개

###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성